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위생적 축산물 생산

봉영농장 - 고영미 대표

제주지원 계상 김미나



고영미 대표

봉영농장은 2002년 05월 10일 모돈 50두 규모로 시작해 현재 모돈 180두, 총 2,1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2007년 5월 7일 HACCP인증에 이어 2009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양돈분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됐다. 환경친화 축산농장은 가축 사육밀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해 전량 농지 환원은 물론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 생활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 심사기준을 통과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위생적인 고품질의 규격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농장의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환경 친화 축산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등급판정결과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말까지 육질 등급에서 1등급 출현율이 15%이며, 1등급 이상은 86.5%, 규격등급에서 A 등급출현율이 64.5%, A·B등급은 89.0%이다.

등급판정결과 요약

구분	A					B					C					1등급					계
	1	1	2	3	계	1	1	2	3	계	1	1	2	3	계	1	1	2	3	계	
암	135	766	75	-	976	32	265	58	1	355	6	54	61	-	121	-	9	48	1	58	1,511
	8.9%	50.7	-	-	-	2.1	17.5	-	-	-	-	-	-	-	-	-	-	-	-	-	-
거세	203	761	64	1	1,029	72	298	34	-	404	19	54	38	-	111	1	13	32	3	49	1,593
	12.7%	47.8	-	-	-	4.5	18.7	-	-	-	-	-	-	-	-	-	-	-	-	-	-
수	-	-	-	-	-	-	-	-	-	-	-	-	1	1	-	-	-	-	-	-	1
계	338	1,527	139	1	2,005	104	563	92	1	760	25	108	99	1	233	1	22	80	4	107	3,105
	10.9%	49.1	-	-	-	3.4	18.1	-	-	-	-	-	-	-	-	-	-	-	-	-	-

규격등급 출현율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계
출현율	64.5%	24.5%	10.95%	3,105두

사양관리 현황 및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정책 특성상 외부에서 종돈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순종을 구입하여 축산진흥원내 종축개량협회의 정액으로 100% 인공수정을 통해 후보돈(F1)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종돈은 Terminal sire로 듀록을 사용(YLD/LYD 3원 교잡종)하여 우수 유전형질에 의한 개량으로 단백질 축적시점이 80kg 정도며 그 이후 지방축적을 위한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 비육돈 후기사료를 60일 이상 급여하고 있다.

특히 물은 순수 화산암반수로 사람이 먹는 식용수를 음수로 사용하고 있다. 포유는 25일까지, 액상의 대용유 사료를 생후 급여하며, 입질사료는 생후 7~14일경에 소량씩 급여한다. 급여된 입질사료는 모유의 영양분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영양을 보충하여 최대의 성장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신생자돈의 경우 분만 후 6시간 이내에 초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간호보만을 하고 있고 생후 3일경에 철분을 주사로 주입하여 주로 생후 10~14일경에 발생하는 빈혈을 예방하고 있다. 포유 자돈에서 목표체중은 7kg이며 대략 일당증체량이 250g정도 증가한다. 이 시기에 중점 관리 사항은 모든 건 강상태, 연령, 산차, 비육능력, 유두 수, 자돈의 영양상태가 있으며, 사료 및 백신관리도 중요하다.

분만 후 55일령까지 지난 돼지사료(2호 2주, 3호 2주), 젖뎀 2주, 육성돈 전기 3주를 자율 급여하고 있으며 이유 후 자돈의 소화기능 변화와 사료의 형태 변화로 인한 소화능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식물성 단백질을 줄이고 유당과 아미노산을 첨가한 사료를 급여 한다. 또한 유기산을 첨가하여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막고 있어, 자돈의 소화기능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때 이유 시의 환경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온도 28~30°C에서 점차적으로 1°C씩 내리면서 관리하고 있다.

100~110일령의 자돈구간이 끝나면 바로 180±10일령(6개월) 출하시까지 비육사료를 급여해 출하하는데 농장에서는 항상제가 포함되지 않은 사료를 출하 60일전까지 급여함으로써 항상제 체내 잔류에 대한 식육 안전성은 물론 비육사료 급여 기간을 길게 가지고 있다.

비육돈의 목표 출하체중은 115kg이며, 일당증체량이 약 900g정도 증가한다. 중점관리 사항은 온도를 18~19°C 정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사료효율 및 사료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습도도 60~80%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며, 급수는 자동 급수기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사육두수 또한 최대 적정으로 유지하여 체중 감량을 줄이고 있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봉영농장은 종돈, 자돈, 비육돈 성장단계별 사료프로그램 및 농장 맞춤형 비육돈 후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은 물론, 다른 양돈농가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하면서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도의 정착화에 좋은 사례가 되고자 한다. 앞으로 외국시장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농장의 규모를 늘리고 나아가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로 브랜드 활성화 및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여 돼지고기 또한 등급별 소비촉진에 앞장서 축산업 발전에 아주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